

호매칼럼



김명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 시를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다.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팽벌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시를 읽다 보니 올해는 팽벌이 넉 달이나 함께 해 지긋지긋한 여름이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 언어가 절로 나오는 시기다. 경주 다녀오는 길에 합천 해인사로 차를 들렸다. 잠시 휴식을 위해 거창 휴게소에 서 하늘을 바라본다.

그동안 무더위가 사납을 지치게 해서인지 푸른 하늘만 보아도 마음이 넉넉해진다.

합천 해인사 가는 길에 시골길을 지나다 점심시간이 되어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두 농부가 식당에 들어와 막걸리 한 사발을 시키더니 "날이 시원해지니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네."라는 이야기를 나눈다. 그동안 더위로 처리하지 못한 일들

이 시원한 바람이 부니 일이 잘 진행되나 보다 이렇듯, 날씨든 모든 이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각이 든다.

해인사는 깊은 산골이라 가을이 빨리 온다. 대추가 붉게 익자 장대로 대추를 터는 농민의 손길이 바쁘다. 후두둑 후두둑 푸른 보자기 아래 붉은 대추가 꽃이 되어 떨어진다. 몇 번 털자 푸른 바구니에 대추가 한 아름이다.

푸른 하늘과 푸른 보자기 그리고 붉은 대추의 조화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우리의 가을은 노랑, 빨강, 파랑이 무너를 다 놓은 것 같다.

합천 해인사를 소리길을 걷는다.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감도 붉게 익어간다. 자연의 섭리는 대단하다. 그렇게 뜨거운 태양을 이기고 수확의 계절로 들어선다. 소리길 따라 걷는 길에 숙부쟁이가 바람에 산들거리는 모습이 사랑스러워 옆을 살

가을이 오면

퍼보니 담벼락에 양지바른 자리에 까마중(떡메알)이 보인다. 어릴 적 까마중이 까맣게 익어가면 친구들과 작은 일을 가득 입안에 넣어 후하 하면 먹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길을 가다 멈추어서 까마중 몇 개를 손으로 따 입안으로 넣어본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이 예전 맛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다. 까마중이 익어가는 계절이 되니 불연히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추억에 새삼스레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까마중이 익어가는 계절이면 텃밭의 작물도 거두어들이는 시기가 된다.

이맘때쯤이면 시골은 바빠지기 시작한다. 아낙의 손은 실 사이가 없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고추를 따고 그사이에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고 들판으로 나간다. 밭에는 사람 손이 들어가야 할 일이 지천이다.

참깨는 익을 뜯은 후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말려서 털어야 한다. 들

깨는 마지막 잎을 따 장을 몇 번 데린 후 먹거리를 위해 저장한 다음, 들깨는 털어서 저장해 둔다.

그리고 짬을 내 호박을 따서 송송 썰어 말려서 저장해 두어야 한다. 어디 그뿐이라. 고구마도 캐서 저장해 두어야 하며 논고랑 사이사이에 심어 놓은 서리태 콩도 잘 거두어 겨울 동안 안 좋은 것은 잘 골라내내년 여름에 콩물 국수를 해 먹으면 제맛이다.

가을 들판에 벼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며칠 후면 들판이 벼 옷을 훌러덩 벗으며 눈과 밭은 휴식기에 들어간다. 휴식기가 없는 들판은 보리, 밀 씨앗이 뿌러질 것이다.

겨울 들판에도 푸르게 하얀 눈을 뒤집어쓴 들판을 생각하니 그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간다.

가을이 가는 길목에 대추 한 알을 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것은 시골에 살았던 경험 때문일 것이다.

올해는 9월 더위에 겨울준비로 심어두었던 배추, 무가 잘 자라지 못해 채소 가격이 올라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김치 더 주세요."라는 말도 미안하다. 이맘때쯤, 햇살을 받고 자란 열무로 짬을 해서 먹으면 제맛인데 아직은 덜 자란 열무 짬은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보다.

계절은 가고 열매는 익어가고 벼는 고개를 숙이며 수확을 기다리는 계절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운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온다'라는 시를 읽다 보니 가을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이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시 한 부분을 읽으며 곡식도 알알이 채워가는 계절에 스스로 질문을 해 본다. 열심히 잘 살았느냐고 깊은 질문을 던져본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도국악원 기획공연, 진도 예인전 '귀향'

12일 진도 출신 김주홍 명인·신영희·강송대 명창 등 초청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진도)에서 토요상설 기획공연 진도 예인전 '귀향(歸鄕)'을 공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진도 예인전은 한국 전통에 슬계의 정점에 선 진도 출신 명인을 초청해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은 김주홍 명인의 '비나리'와 '소낙비', 신영희 명창의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강송대 명창의 '남도잡가', 마지막으로 박강열 명인과 김병천 명인의 '진도복놀이'로 특별 구성했다.

먼저 사람들의 일상사에 방해가

되는 액살을 물리치도록 기원하는 노래인 '비나리'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 소리가 빗소리와 닮은 장구 합주곡인 '소낙비'까지 선보인다.

'비나리'와 '소낙비'를 연주하는 김주홍 명인은 (사)노름마치예술단 예술감독으로 각종 해외공연과 축제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또한 김주홍 명인은 우리 음악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로 우리나라 음악을 알리고,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맹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황성을 향하는 심봉사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신영희 명창의 소리로 만나볼 수 있다. 신영희 명창은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이며,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명창 중 한 명이다.

이어서 남도지역을 대표하는 민요 중 '육자배기'와 '흥타령'을 강송대 명창이 선보인다. 강송대 명창은 전라남도무형유산 남도잡가 보유자로 제2회 전국 남도민요경창대회 명창부 대상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남도를 대표하는 명창이다.

마지막으로 박강열 명인과 김병천 명인이 양손에 복채를 쥐고 북을 치며 추는 '진도복놀이'를 선보인다. '진도복놀이'는 박관용류, 양태육류, 장성천류로 나뉘어 전승되고 있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양태육류와 장성천류가 함께 무대에 선다. 공연은 무료다.

/진도=박재영 기자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한글날 행사

9일, 한창기 선생의 한글 사랑 기념...미술 공연 등 다채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서는 2024년 한글날을 맞이해 한글

보급화에 기여 한 한창기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9일 뿌리깊은나

무박물관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한창기 선생님은 1970년대 잡지 관행이었던 '일본식의 국·한자 혼용과 세로쓰기'를 모두 깨고, '순수 한글로만 가로쓰기'를 앞세워 일간지 '뿌리깊은나무'라는 잡지를 창

간하신 분으로, 한글과 한국의 열, 토박이말을 사랑한 한글 운동가이다. 이번 행사는 체험 프로그램 부스 운영과 도전 한글왕 퀴즈 대회가 열린다. 또한, 부대행사로 태권도 시연 퍼포먼스, 미술 공연 등도 함께 진행된다. /순천=조순의 기자

환경예술 전시 '나비 Project'·사진 영상 공모전

산이정원, 자연환경 배경 예술 작품 설치

보성그룹은 전남도 최초 식물원인 산이정원이 가을을 맞이해 환경과 예술의 조화를 전시로 풀어낸 '나비 Project'와 산이정원의 모습을 담아내는 '산이정원 사진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7일 밝혔다.

'나비 Project'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예술 작품이 정원 곳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산이정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

우러지도록 기획했으며, 관람객들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기간은 이달 7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또 산이정원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상품도 받을 수 있는 '사진 영상 공모전'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산이정원의 가을'을 주제로 진행되며, 산이정원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 호 기자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재남도프린테크 (062) 943-0140, 지역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말 : 1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총장 223-4123, 부총장 224-4188, 동부 234-4235, 학동 225-0651, 광천 374-2120, 화정 374-3713, 금호 376-7153, 쌍촌 371-9584. 상무 381-5310, 서부 651-0004, 송암 362-4102, 농성 362-4102, 진월 671-7276, 봉선 675-5530, 중앙 521-5640, 중흥 433-1503, 양산 574-3745, 운암 521-4270. 오치 261-9461, 문흥 261-9462, 일곡 573-3200, 동문 525-8994, 두암 266-1920, 첨단 971-1920, 신창 955-0451, 월곡 941-9174, 송정리 010-5524-3638. 지사안내: 목포 010-8718-1234, 순천 010-9656-1383, 광양 010-9656-1383, 나주 010-3644-7272, 나주 010-3644-1309, 담양 010-3602-3650, 곡성 010-2632-4504, 구례 010-8597-0053. 보성 010-3626-4776, 화순 010-2430-5055, 영광 010-9860-5489, 완도 010-5066-4708, 장흥 010-5665-8354, 신안 010-4217-9480, 강진 010-3775-2369, 장성 010-3610-7824. 무안 010-9271-8517, 여수 010-8587-2288, 함평 010-3095-5842, 영암 010-4604-3742, 진도 010-8525-4567, 해남 010-3471-6542, 광산 010-7613-4320.